

# 독일, 8년만에 유로 8강행... '전차군단' 부활 알린다

### 유로 2024 16강전 덴마크 2-0 완파... '췌기골' 무시알라 대회 3득점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 스위스에 0-2 패... 우승팀 잉크스 이어져

개최국 독일이 8년 만에 유로(유럽축구선수권대회) 8강에 올랐다. 독일은 지난 30일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유로 2024 16강전에서 덴마크를 2-0으로 완파했다. 독일의 메이저 대회 잔혹사를 끊어낸 승리다. 4강에 오른 유로 2016 뒤로는 한 번도 메이저 대회 토너먼트 승리를 거두지 못하던 독일이다. 독일은 유로 2020에서는 영국과의 16강전에서 0-2로 져 탈락했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연달아 조별리그에서 탈락해 토너먼트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독일은 후반 8분 카이 하베르츠의 페널티킥 골로 앞서나갔다. 앞서 덴마크 수비수 요아킴 안데르센이 독일의 크로스를 막는 과정에서 핸드볼을 범한 것으로 비

디오판독(VAR)에서 드러나 독일이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승기를 잡은 독일은 후반 23분 자말 무시알라의 골로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무시알라는 뒤에서 니코 솔로터베르크가 길게 넘겨준 패스를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침착하게 오른발로 마무리해 2-0을 만들었다. 이 골로 대회 3번째 득점을 성공한 무시알라는 조지아의 조르지 마카우타제와 득점 랭킹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한편, 폭우와 강풍 속에 진행된 이 경기는 전반 35분경 경기장 부근에 낙뢰까지 떨어지면서 20분 정도 중단됐다. 베를린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는 스위스가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를 2-0으로 물리치고 8강에 올랐다.

전반 37분 루벤 바르가스의 땅볼 크로스에 이은 레오 프로일리의 왼발 발리슛으로 선제골을 뽑은 스위스는 후반 1분 바르가스의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추가골을 뽑으며 승리를 예고했다. 이탈리아는 스위스 골대를 두 번 맞추는 불운도 있었지만, 유효슈팅이 1개에 그치는 등 경기력 자체가 안 좋았다. 스위스는 8강까지 오른 유로 2020에 이어 2회 연속으로 대회 8강 고지에 올랐다. 스위스는 또 이탈리아를 상대로 31년 만에 승리를 거뒀다. 반면에 이탈리아는 챔피언이 다음 대회 16강에서 탈락하는 이 대회 징크스를 반복했다. 유로 2016부터 이 대회 토너먼트가 16강으로 확대된 가운데, 유로 2012 우승팀 스페인에 유로 2016 16강에서 이탈리아에 져 탈락했다. 유로 2016 우승팀인 포르투갈은 유로 2020에서 벨기에에 탈미를 잡히며 역시 16강에서 짐을 썼다. 이탈리아는 유로 2020 결승에서 잉글랜드를 승부차기 끝에 물리치고 우승했는데, 이날 스위스에 완패하면서 우승팀의 징크스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UEFA 유로 2024 16강전 독일과 덴마크의 경기에서 독일의 자말 무시알라가 췌기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원철·윤재석 영입... 전남, 공격·스피드 강화 '우승 날개' 편다

### 최원철, 중앙·측면 가능한 멀티자원 윤재석, 공간 침투·골 결정력 장점

K리그2 전남드래곤즈가 우승 도전을 위해 중원과 측면을 강화했다. 전남이 전천후 미드필더 최원철(29)과 측면 공격수 윤재석(21)을 영입했다. 최원철은 177cm 73kg의 다부진 체격을 갖추고 있으며, 왕성한 활동량과 스피드로 중원을 이끄는 미드필더다. 측면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한 멀티자원으로 2017년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했다. 수원FC에서 2년간 19경기 1득점 1도움을 기록한 그는 이후 대전코레일, 서울원유나이티드, 춘천시민축구단을 거쳐 전남에서 다시 K리그 무대에 오르게 됐다. 최원철은 "다시 K리그 무대에 설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구단, 감독님께 감사하다. 팬분들께 승리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빨리 팀에 적응해 그라운드에서 불태우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전남은 천안시티FC에서 U22 자원인 측면 공격



최원철 윤재석  
수 윤재석도 불러들였다. 173cm 65kg의 윤재석은 중앙대를 거쳐 올 시즌 천안시티FC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특급 신인'으로 빠른 스피드를 갖겠다. 16경기에서 나와 3득점 1도움을 올리며 K리그 적

을 끝낸 그는 공간 침투 능력은 물론 골 결정력까지 겸비하면서 전남의 공격에 다양한 옵션이 될 전망이다. 윤재석은 "명문구단 전남에 입단해 큰 영광이다.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땀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 올 시즌 공격포인트를 많이 올리고, 팀 승리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수원상성과의 홈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8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는 전남은 올 시즌 8승 5무 4패(승점 29)를 기록하면서 FC안양(10승 4무 3패·승점 34)에 이어 2위에 랭크됐다. 전남은 1일 오후 7시 30분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FC를 상대로 9경기 연속 무패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여대 오예진, 대통령기 전국양궁대회 3관왕

### 광주체고 단체전 금, 광주은행 최미선·김이안 동메달 등



양궁 김이안(왼쪽부터), 오예진, 최미선.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광주여대 오예진이 '제42회 대통령기 전국남여 양궁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다. 오예진은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예천진호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거리별 경기 70m와 30m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건 뒤 올림픽라운드로 열린 개인전에서도 1위에 올랐다. 50m에서 은메달을 땀었던 오예진은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에 혼성단체전서 동메달도 획득했다. 오예진은 이번 대회 여자대학부 개인전 8강에서 김아현(창원대)을 6-0으로 꺾은 뒤 4강에서 조민서(동서대)에 6-4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염혜정(경희대)을 만난 오예진은 6-0으로 승리하며 여자대학부 정상에 올랐다. 남자고등부에서는 광주체고가 단체전 우승을 거머쥐었다. 최우진, 심태한, 박주혁, 심유한이 팀을 이룬 광주체고는 8강전에서 서울에 5-4승을 거뒀고, 4강에서 대전을 상대로 6-2로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다. 광주체고는 결승에서 대구를 5-1로 꺾으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자일반부에서는 최미선과 김이안(이상 광주은행연양궁단)이 공동 3위로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시도대항전으로 열린 혼성단체전에서는 일반부에서 이승윤(광주남구청)과 김수린(광주시청)이, 대학부에서 이원주(조선대)와 오예진이 팀을 이뤄 각각 동메달을 합작했다. 한편, 앞서 열린 거리별 경기에서 여자일반부 30m에 출전한 김수린이 엑스텐 22개, 360점 만점으로 한국신기록 타이틀을 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남자고등부 90m에서 박주혁이 은메달, 여자대학부 60m 서보온(순천대)과 여자고등부 60m 남지현(광주체고)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광주시청 김옥금, 장애인 양궁 유러피안 컵 은메달

### W1 혼성 단체전 박홍조와 호흡

한국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 김옥금(광주시청·사진)이 체코 노베 메스토에서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월드컵대회에서 은메달 2개를 수확하며 활약했다. 김옥금은 지난 29일 '2024 장애인 양궁 유러피안 컵' WW1 결승전에서 123점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김옥금은 이날 벨리자리 아시아(이탈리아)와의 결승전 3연전에서 2점을 쏘는 실수를 하며 123-132, 9점 차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앞서 김옥금은 지난 28일 진행된 W1 혼성 단체전에서 박홍조(서울시청)와 팀을 이뤄 은메달을 합작했다. 김옥금과 박홍조는 결승에서 첸민이와 장텐신(이상 중국)을 상대로 143-144, 1점 차로 패했다. 그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실수로 인

해 은메달을 획득해 아쉬운 마음이 있다"며 "다가올 파리 패럴림픽 준비를 확실히 해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옥금은 올해 3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8회 파자파라 양궁 월드컵대회'에서 개인 종합 1위, 지난 2023 사카고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따내는 등 꾸준히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시청 안형승 감독은 "김옥금은 부족한 장비 지원 등 열악한 훈련 환경과 컨디션이 저하된 상태였음에도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며 "이번 경기 결과를 떠나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장점을 강화시켜 파리 패럴림픽을 잘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옥금, 박홍조, 김경화(전북장애인체육회), 최나미(대전장애인체육회), 박건휘(경남장애인체육회)가 대표로 출전했다. 한편 김옥금은 오는 8월 열리는 2024 파리패럴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



한국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 김옥금(광주시청)이 지난 29일 체코 노베 메스토에서 치러진 '2024 장애인 양궁 유러피안 컵' WW1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제공>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시립오페라단 제15회 정기공연 | 콘서트 오페라 가족 오페라 <신데렐라>  
일시 : 2024-07-26(금) 19:30  
2024-07-27(토) 15:00,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  
문의 : 062-412-2502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Romantic>  
일시 : 2024-07-18(목) 11:00,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